



해외의 아름다운 정원(2)



송 광 섭
이투데이 증권부장

네덜란드 북캠프 가든..정원과 예술품의 만남

독일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네덜란드 보네 지방의 북 캠프 가든(Boomkamp Garden, www.boomkamp.com)의 규모는 6만m 로 이곳에는 52개의 각종 테마정원이 조성돼 있다.

폐허 정원, 터널 정원, 장미 정원 등이 있다.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6개 정원중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섬세함과 정교함에서는 단연 수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다.



조경사와 건축주 사이에 설계 및 시공 상담이 이곳에서 진행될 정도로 네덜란드 조경산업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원 나뭇대로의 독특한 분위기도 그만이지만 눈여겨볼 대목은 정원만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조각물과 오브제 등 다양한 조형물이 함께 전시돼 있다는 점이였다.

조경 따로 예술 작품 따로가 아니라 정원 속에서 인간이 만든 다양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해내고 있었다. 조경을 한 정원은 이들 작품들로 인해 더 빛을 발했고, 예술작품들도 쉼렁한 화랑이 아닌 자연속에 전시돼서인지 생동감이 있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모델 정원을 설치할 때 다른 예술 작품과의 접합을 통해 공존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이곳 정원을 걷다보면 터널 정원을 만날 수 있다. 등나무 등으로만 울타리와 터널을 만든 것과는 달리 나무를 철제 구조물에 맞게 늘어뜨려자라도록 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각 정원마다 번호표와 이동경로를 표시해놓아 단 한 곳도 놓치지 않고 둘러보도록 배려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네덜란드 '아펠턴 가든'

공원 전체 면적이 13만 m^2 로 네덜란드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정원인 아펠턴 가든(Appeltem Garden)을 찾았을 때 날씨가 썩 좋지 않았다. 이곳에는 180여 개 크고 작은 정원이 들어서 있다. 필자가 이곳을 찾은 8월 말경의 날씨가 그래서인지 해가 떴다가 잠시 후 비가 오고, 정말 변화무쌍했다.

이곳에도 갖가지 정원 모델이 전시돼 있다. 짓궂은 날씨임에도 가족끼리 연인끼리, 아니면 노부부끼리 손 잡고 공원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모습이 참 푸근해보였다.

또 한곳에는 정원 설계 도면만을 별도로 전시하고 있었다. 가든 이름도 다양했다. 겨울 가든, 역사 가든, 물과 호수 가든, 약용식물 가든, 지붕조경 가든, 영원한 가든, 네덜란드 가든, 동쪽 가든, 야채가든, 조형물 가든, 새 가든 등 테마별로 잘 조성해놓았다.

공원 관계자는 "이곳에는 네덜란드 내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식물들이 심어져 있다"며 "180여 개 정원이 모두 다르게 설계-시공돼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또 다른 볼거리는 정통 조경 양식 외에 현대 건축 양식을 응용한 다양한 실험적인 작품들도 함



께 전시돼 있다는 점이다.

네덜란드에도 '플로리에이드' (Floriade)라는 정원쇼가 10년마다 한번씩 열린다. 네덜란드 플라워쇼를 대표하는 것은 퀘겐호프 꽃축제이다. 행사기간에 9만 7천여 평의 공원은 700만 송이의 튤립, 수선화, 히아신스 등으로 뒤덮인다. 🌷

